

19TH INTERNATIONAL
FRYDERYK CHOPIN PIANO
COMPETITION WARSZAWA 2025

KBS S.O. 820TH



KBS교향악단 제820회 정기연주회

지휘 레너드 슬래트킨 피아노 에릭 루
LEONARD SLATKIN ERIC LU
CONDUCTOR PIANO

2025.11.21. FRI 20:00 롯데콘서트홀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KBS S.O. 820TH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주세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주세요.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Presented as part of the official tour of the Winners of the 19th Chopin Competition,
supported by the Polish Ministry of Culture and National Heritage.

폴란드 문화유산부(Ministry of Culture and National Heritage)의 후원으로 마련된
제19회 쇼팽 콩쿠르 우승자 공식 투어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Program

신디 맥티
C. McTee

순환
Circuits

*한국 초연
*Korean Premiere

① 6'

쇼팽
F. Chopin

피아노 협주곡 제2번 f단조, 작품21
Piano Concerto No.2 in f minor, Op.21

① 33'

I. Maestoso
장엄하게 (14')

II. Larghetto
라르고(폭넓고 여유롭게, 천천히)보다 조금 빠르게 (10')

III. Allegro vivace
조금 빠르게 (9')

인터미션

Intermission

① 15'

쇼스타코비치
D. Shostakovich

교향곡 제11번 g단조, 작품103 '1905년'
Symphony No.11 in g minor, Op.103 'The Year 1905'

① 55'

I. The Palace Square
궁전 앞 광장 (14')

II. The 9th of January
1월 9일 (17')

III. In Memoriam
추도 (10')

IV. The Tocsin
경종 (14')

① 총 소요시간 : 약 125분 (인터미션 포함)

* 총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상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NDUCTOR
LEONARD SLATKIN

지휘 레너드 슬래트킨



© Cindy McTee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휘자 레너드 슬래트킨은 디트로이트 교향악단의 명예 음악감독,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의 명예 음악감독, 세인트루이스 심포니의 명예지휘자, 그란 카나리아 필하모니의 수석 객원지휘자, 라스 베가스 필하모닉의 예술고문을 맡고 있다. 슬래트킨은 전 세계를 돌며 바쁜 객원 지휘 일정을 소화하면서 작곡가이자 작가,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다.

슬래트킨은 자신의 80번째 생일을 기념해 디트로이트 교향악단,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 세인트루이스 심포니, 워싱턴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자신이 음악감독으로 재직했던 오케스트라를 다시 지휘한다. 이밖에도 슬래트킨은 2024/25 시즌 동안 뉴욕 필하모닉, 내슈빌 심포니, 노스캐롤라이나 심포니, 맨해튼 음대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스트맨 필하모니아, 아일랜드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도쿄도 교향악단, 오사카 필하모니, 히로시마 심포니 오케스트라, 크리스티안산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예루살렘 심포니, 세인트루이스 오페라극장에서 지휘한다. 또한 슬래트킨이 작곡한 ‘슈베르티아데: 오케스트라 환상곡’과 윈드 오케스트라를 위해 편곡한 스카를라티의 건반 소나타도 이번 시즌 세계 초연된다.

그는 그래미 어워즈를 6번 수상했고 35번이나 후보에 올랐다. 최근에는 세인트루이스 심포니와 함께한 거슈윈, 라흐마니노프, 프로코피예프의 작품 녹음이 낙소스의 복스(Vox) 레이블을 통해 오디오파일 에디션으로 재발매되었다. 다른 낙소스 발매작으로는 여러 세대에 걸친 슬래트킨 가문의 작품을 녹음한 <슬래트킨이 지휘하는 슬래트킨>을 비롯해 생상스, 라벨, 베를리오즈, 코플랜드, 보르조바, 맥티, 윌리엄스의 작품이 담긴 앨범이 있다.

슬래트킨은 권위 있는 미국 국가 예술 훈장을 받은 데 이어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기사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그는 미국 알리앙스 프랑세즈로부터 샤르보니에 상을 수상했고, 오스트리아 국가 공로 훈장 은장을 받았으며, 미국 오케스트라 연맹에서 수여하는 황금 지휘봉 상을 수상했다.



ERIC LU, PIANO

피아노 에릭 루

© Ben Eavolega

2025년 제19회 프레데리크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인 에릭 루는 섬세한 음색과 깊이 있는 해석으로 세계 무대가 주목하는 피아니스트이다. 루는 20세의 나이로 2018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고, 이듬해 워너클래식과 독점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하는 한편 각지의 유명 리사이틀홀에서도 독주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에릭 루가 최근 함께 무대에 오르거나 오를 예정인 오케스트라로는 런던 교향악단, 시카고 교향악단, 보스턴 교향악단, LA 필하모닉, 샌디에이고 교향악단, 시애틀 교향악단, 밴쿠버 교향악단, 오슬로 필하모닉, 핀란드 방송교향악단,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로열 스톡홀름 필하모닉, 스웨덴 실내악단, 헬싱키 필하모닉, 릴 국립 관현악단, 로열 필하모닉, 스코틀랜드 실내악단, 본머스 교향악단, 아이슬란드 교향악단, 도쿄 교향악단, 요미우리 일본 교향악단이 있으며, 특히 상하이 교향악단과는 BBC 프롬스 무대에 오른 바 있다. 함께 호흡을 맞춘 지휘자로는 리카르도 무티, 미르가 그라지니테릴라, 라이언 밴크로프트, 마린 알숍, 덩컨 워드, 바실리 페트렌코, 에드워드 가드너, 마크 엘더 경, 토마스 다우스고르, 루스 라인하르트, 이얼, 누노 코엘류, 마르틴 프뢰스트가 있다.

독주자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에릭 루는, 웰른 필하모니,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헤바우, 런던 퀸 엘리자베스 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함부르크 엘프필하모니, 샌프란시스코 데이비스 심포니 홀, 캘리포니아 칼퍼포먼스, 아스펜 음악제, 브뤼셀 보자르, 파리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 뉴욕 92번가 Y, 예술의전당, '쇼팽과 그의 유럽' 페스티벌, 바르샤바 필하모닉 홀, 살라 상파울루 등 유수의 무대에 올랐다. 특히 위그모어 홀에서는 2024년까지 6년 연속으로 독주회를 열어오고 있다.

에릭 루는 2022년 12월 워너클래식과 함께하는 세 번째 음반으로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D.959와 784를 녹음했다. 이 음반은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고, BBC 뮤직 매거진은 이 음반을 기악 부문 초이스로 선정하며 '에릭 루는 슈베르트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라고 평했다. 쇼팽의 24개 전주곡과 슈만의 '유령 변주곡'을 녹음한 에릭 루의 전작은 인터내셔널 피아노로부터 '정말 마술적'이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

1997년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난 에릭 루는 불과 17세의 나이로 2015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국제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7년에는 인터내셔널 저먼 피아노 어워드를 수상했고, 2021년에는 애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를 수상하기도 했다. 2019~2022년에는 BBC 신세대 아티스트로 선정되어 활동했다. 커티스 음악원에서 로버트 맥도날드와 조너선 비스를 사사하고 졸업한 에릭 루는 당 타이 손의 제자였으며, 우치다 미츠코와 이모겐 쿠퍼의 멘토링을 받은 바 있다.

오늘 공연은 우리나라의 클래식 음악팬들에게 분명 특별한 무대로 기억될 것이다. 제19회 국제 프레데리크 쇼팽 피아노 콩쿠르의 우승자 에릭 루가 내한, 콩쿠르 결선 무대에서 협연했던 <피아노 협주곡 f 단조, 작품 번호 21>을 KBS교향악단과 연주하기 때문이다. 지난 해 에릭 루는 KBS교향악단 유럽 투어 중 바르샤바 국립 필하모니 홀에서 같은 곡을 협연한 바 있다.

오늘 무대는 에릭 루가 쇼팽 콩쿠르 우승 후 국내에 선보이는 첫 협연무대이기에 더욱 귀한 시간이 아닐까 싶다. 에릭 루는 2015년 지난 17회 쇼팽 피아노 콩쿠르(조성진 우승)에 이어 이번 19회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 두 번째 도전, 우승을 거머쥐었다. 새로운 스타 피아니스트의 탄생을 가장 먼저 지켜볼 수 있는 오늘 무대의 포디엄에는 현대 클래식 음악계의 주요한 순간을 만든 지휘자 레너드 슬래트킨이 오른다. 그는 현대 작곡가로 활동 중인 아내 신디 맥티의 대표작 <순환>,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1번>을 KBS교향악단과 함께 연주한다.

글 | 정은주(음악 칼럼니스트)

신디 맥티
C. McTee

순환
Circuits

*한국 초연
*Korean Premiere

작곡연도 1990년
초연 1990년 4월 21일, 미국 텍사스(오케스트라 버전)
편성 플루트 3, 오보에 3, 클라리넷 3, 바순 3,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피아노, 카우벨, 메탈 플레이트, 나무블록, 암글로켄, 큰 북, 작은 북, 템플 블록,
글로겐슈필, 심벌즈, 탬버린, 비브라폰, 현 5부
연주 시간 약 6분

신디 맥티(1953~)는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현대 음악 작곡가다. 그는 미국 노스 텍사스 대학교에서 27년간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던 교육자로도 활동했다. 그는 지난 2011년 노스 텍사스 대학에서 정년 퇴임한 후, 오늘 공연의 무대를 이끄는 지휘자 레너드 슬래트킨과 결혼했다. 맥티는 미국 예일대 등에서 공부했는데, 특히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의 제자로 유명하다. 그동안 그는 구겐하임 펠로우십, 풀브라이트 펠로우십, 미국 예술 문학 아카데미상 등 여러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며 현대 음악 작곡가로 실력을 인정받아왔다.

<순환>은 그가 1990년에 텍사스주 덴턴의 덴턴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위해 작곡한 단일 악곡으로, 미국의 지휘자 레이 크레이머에게 원드 앙상블 버전으로 헌정한 작품이다. 오늘 공연하는 악보는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레너드 슬래트킨한테 헌정하였다. 맥티는 이 곡의 음악적 언어에서 두드러지는 여러 중요한 측면을 특징짓기 위해 순환이라는 제목을 직접 지었다. 그가 쓴 프로그램 노트에 따르면 이 작품은 총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오스티나토와 같이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구조에 강하게 의존한다. 둘째, 형식적인 디자인은 수많은 반복되는 짧은 악절로 구성된다. 셋째, 분당 152박자의 일정한 템포로 연주되는 16분음표를 사용, 끊임없이 이어지는 운동 에너지를 표출한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이 작품에는 다양한 여러 요소들이 다양하게 조작되는 것을 들어볼 수 있다. 재즈, 당김음, 갑작스러운 조옮김, 병치 등기법을 통해, 그는 음악적 재료를 재치 있게 조작했다. 마치 맥티의 작곡 스타일이 추구

하는 것처럼 다양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담은 것.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연주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무척 빠른 템포로 흘러간다. 전체적인 느낌은 밝다.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모든 악기군 연주자들이 쉴 새 없이 연주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베이스의 저음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효과는 전체적인 이 작품의 음악적 유희를 배가시킨다.

또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타악기군의 색다른 쓰임새도 주목할 만하다. 셋잇단음표나 엇박자, 미국적 요소의 여러 리듬들이 현악기, 타악기, 금관악기 군과 어우러지며 흥을 돋운다. 마지막까지 한숨에 단번에 달려가는 템포를 따라가다 보면 경쾌한 마지막 음을 시원하게 들을 수 있다. 오늘 공연은 이 작품의 한국 초연 무대이며, 총 연주 시간은 약 6분이다.

쇼팽
F. Chopin

피아노 협주곡 제2번 f단조, 작품21
Piano Concerto No.2 in f minor, Op.21

작곡연도 1829~1830년
초연 1830년 3월 17일, 폴란드 바르샤바
편성 독주 피아노,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2,
트럼펫 2, 베이스 트롬본, 팀파니, 현 5부
연주 시간 약 33분

폴란드의 영웅, 프레데리크 쇼팽(1819~1849)은 평생 두 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썼다. 오직 피아노만이 자신의 음악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피력했던 그는 열아홉 살의 가을과 겨울 사이에 처음으로 피아노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제2번 f단조, 작품번호 21>을 완성했다. 이후 그는 1830년 3월 17일 바르샤바에서 직접 이 작품을 초연했는데, 연주 당일 바로 며칠 후의 공연을 요청받았을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다. 1832년 파리 데뷔 무대에서도 이 작품을 연주했는데, 벨기에의 음악 평론가이자 작곡가 프랑수아-조제프 페티스(1874~1841)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풍부한 독창성 담긴 작품”이라는 극찬을 남겼다. 쇼팽의 초기 피아노 작품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 청년 쇼팽이 수줍게 그러나 굉장히 깊이 있게 쓴 한 편의 음악적 시(詩)처럼 무척 아름답다. 또한 오늘날까지 피아니스트와 피아노 음악 애호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쇼팽의 작품 중 하나다.

보통 이 작품을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 작품은 1번이라 부르는 <피아노 협주곡 e단조, 작품번호 11>보다 먼저 쓰였다. 즉 이 작품이 1번인 셈으로, 두 작품의 순서가 뒤바뀐 사연도 재미있다. 1831년 파리에 도착했던 쇼팽은 자신의 작품 출판을 위해 음악 출판업자 모리스 술레징어(1798~1871)를 선택했다. 당시 파리는 피아노의 대중화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피아노 제작 산업화의 활성으로 인해 개인이 소유한 피아노가 많았다. 자연스레 작곡가들도 피아노 작품을 많이 만들었고, 피아노 작품 악보가 잘 팔렸다. 이런 상황에서 술레징어는 1번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아노 부분이 쉬운 2번째 협주곡인 <피아노 협주곡 e단조, 작품번호 11>을 먼저 출판했다.

“쇼팽의 피아노 작품은 하나의 유파를 이루었다.

가장 독창적인 우아함, 예기치 못한 선율 전개, 대담한 화성,

그리고 리듬 악센트의 독립성이 모든 요소가 그가 창안한 완전한 장식체계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그의 피아노 연습곡들은 탁월한 기교와 가장 빛나는 영감이 응축된 걸작이다.”

엑토르 베를리오즈가 <토론 신문> 1849년 10월 27일에 기고한 ‘쇼팽의 죽음’ 중 일부 발췌

총 3악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약 30분간 연주된다. 이전 피아노 협주곡의 평범한 양상이 아니라 피아노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점이 눈에 띄는 작품이다. 피아니스트의 기량이 적나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기교적인 악절들이 반복된다. 동시에 피아노 음악에 대한 무척 섬세하고 동시에 화려한 쇼팽의 남다른 시선으로 가득하다. 오케스트라 부분은 이그나치 펠릭스 도브진스키(1807~1867)와 토마스 니데초키(1807~1852)가 편곡을 도왔다고도 전해진다.

I. Maestoso 장엄하게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들이 역동적 멜로디와 화성을 길게 보여주다가 피아노의 첫 등장부터 모든 이야기를 피아노에게 맡긴다. 이어지는 피아노의 선율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서정적인 선율을 들려주려 존재하는 듯하다. 마치 청년의 패기처럼 새롭고 신선한 구조로 이어진다. 피아노가 충분히 노래할 만큼 마음껏 표현하며 짧고 강렬한 오케스트라의 코다로 막을 내린다.

II. Larghetto 라르고(똑넓고 여유롭게, 천천히)보다 조금 빠르게

프란츠 리스트(1811~1886)는 이 악장을 두고 “거의 이상적인 완벽함이며, 그 표현은 때로는 빛으로 빛난다”라고 평했다. 2악장은 애듯한 선율들이 가득한데, 실제로 쇼팽이 사랑했던 바르샤바 음악원 동창이었던 젊은 성악가 콘스탄차 글라드코프스카에 대한 마음에서 영감받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트레몰로를 사용하는 현 악기들은 피아노를 더욱 빛나게 한다. 특히 이탈리아 오페라 형식의 선율 구조는 오케스트라와 피아노를 오가며 이어진다.

III. Allegro vivace 조금 빠르게

단순하지만 강렬한 악장이다. 피아노의 기교적인 측면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 동시에 피아니스트가 재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마지막 악장이기도 하다. 폴란드의 전통 춤곡 중 하나인 마주르카 리듬으로 시작하는데, 피아노의 어렵고도 난해하지만 간단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인상적인 점은 기본의 한가운데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영역의 화려함이다.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활의 나무 부분을 이용한 콜 레뇨 기법을 중간중간 사용하는데, 피아노와 대조적이다.

쇼스타코비치

D. Shostakovich

교향곡 제11번 g단조, 작품103 ‘1905년’

Symphony No.11 in g minor, Op.103 ‘The Year 1905’

작곡연도 1957년

초연 1957년 10월 30일, 소련 모스크바

편성 플루트 3(피콜로 겸함), 오보에 3(잉글리시 호른 겸함), 클라리넷 3(베이스 클라리넷 겸함), 바순 3(콘트라바순 겸함),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팀파니, 실로폰, 작은북, 큰북, 심벌즈, 트라이앵글, 탐탐, 종, 첼레스타, 하프 2, 현 5부

연주 시간 약 55분

“러시아의 역사는 많은 일들이 반복되며 만들어 왔다.

물론 같은 사건이 정확히 반복될 수는 없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극이 반복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중략). 나는 <교향곡 11번>에서 역사적으로 우울한 반복을 보여주고 싶었다. 1957년에 작곡했지만, ‘1905년’이라는 제목을 붙인 까닭이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증언』 중 일부 발췌

1905년 1월 9일 러시아 제국에서 끔찍한 학살이 일어났다. ‘피의 일요일’이라 불리는 이 비극은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이 이끄는 비무장 평화 시위대(약 10만 명 추정)가 차르 니콜라이 2세가 머물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 궁전 앞 광장에 진입하며 시작됐다. 당시 러시아 제국은 상황이 무척 좋지 않았다. 노동자 계급은 수년간 이어진 고된 노동과 정치적 불안에서 고통 받았다. 이날 시위는 사제들이 차르를 알현, 상황 해결에 대한 청원서를 전달하려던 자리였다.

그러나 정작 차르 니콜라이 2세는 별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다. 라푸스틴의 명령에 따라 겨울 궁전을 지키던 군인들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적인 발포를 시작했다. 광장에서 약 200명이 총격으로 즉사했고, 천여 명이 총격에 세상을 떠났다. 훗날 1917년 러시아 혁명의 발단이 된 이날의 참극에 대해 결국 차르 니콜라이 2세는 애도를 표할 수밖에 없었다. 시민들의 몇 가지 청원 사항을 승인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작곡가이자 정치적 입장으로 여러 공격과 오해 속에서 살았던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1906~1975)의 증언처럼, 러시아 제국은 또다시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 결국 3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로마노프 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쇼스타코비치의 아버지 드미트리 볼레슬라보비치 쇼스타코비치는 이 시위에 참가했던 생존자다. 당시 처참했던 경험담을 아들에게 종종 전했다. 쇼스타코비치는 언젠가 이날의 이야기를 작품에 담아보리라 생각했다. 그는 <교향곡 제10번>의 세계적인 성공 이후 다음 작품을 구상하던 중 이 작품을 떠올렸다. 마침 정부 측에서 그에게 볼세비키 혁명 4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작품으로 제안한 배경도 있다. 긴 긴 사연 속에서 탄생한 이 작품은 1957년 10월 30일 모스크바 음악원 볼쇼이 홀에서 나단 라클린이 지휘하는 소련 국립 교향악단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피의 일요일이 일어난 지 약 52년 만의 일이었다.

이 작품은 총 4악장 형식으로, 쉼 없이 약 1시간 동안 연주된다. 쇼스타코비치가 직접 붙인 각 악장의 부제들은 ‘피의 일요일’을 시간의 흐름대로 담았다. 고요했던 아침 겨울 궁전에서 1월 9일의 비극이 어떻게 또 다른 비극으로 반복되는지를 들려준다. 특히 각 악장에는 19세기와 20세기 그의 조국에서 울려 퍼지던 혁명 노래들을 들을 수 있다. 초연 이후 큰 인기를 끈 이 작품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소련 정부로부터 ‘레닌상’(1958년)을 받았다.

I. The Palace Square 궁전 앞 광장

비극적 참극의 전야를 느낄 수 있는 악장이다. 느리게 움직이는 도입부는 소련의 혁명 노래 ‘감옥’ 등으로 이루어진다. 불협화음을들의 화음, 끊이지 않는 타악기의 두드림, 현악기의 날카로운 도약과 하강은 불안감을 더한다. 다가올 참사를 막을 수 없는 듯한 불안이 고조된다.

II. The 9th of January 1월 9일

1악장에서 바로 이어진 호흡은 노동자 계급이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장면을 묘사한다. 소련의 노래 ‘오 차르 우리 아버지’ 등이 아리나리하게 변주되어 흐른다. 예상하지 못했던 군인들의 총격처럼 금관악기군은 두려운 음을 쏟아낸다. 이어 ‘모자를 벗자’의 선율이 불규칙하게 쏟아진다. 이 작품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큰 주제로 쓰인다. 소련의 혁명 선율들이 각각 부딪히며 폭력의 잔인함을 연상케 한다.

III. In Memoriam 추도

‘피의 일요일’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한 추모의 시다. 1924년 레닌의 장례식에서 연주된 혁명 장송곡을 변주, 영원히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현악기의 부드러운 음색이 목관 악기군을 감싸안는 듯 슬픔을 노래한다.

IV. The Tocsin 경종

저항의 의미, 앞으로의 폭력과 비극에 관한 이야기가 ‘위험의 회오리바람’, ‘폭군들’ 등의 소련 혁명가를 통해 흐른다. 금관악기군의 팡파르 속에서 어딘가 어색하게 맞아 들어가는 오케스트라의 흐름은 역설적이게도 긴박하지만 다급하지 않게 들린다. 군가 ‘바르샤반카’도 정신없이 등장했다 다시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마치 분노에 찬 군중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듯하다. 타악기들은 혁명의 승리를 위한 축포를 발사하는 듯 경쾌하게 흐른다. 그러다 숙연하고 침착한 분위기로 마지막을 노래한다.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KBS교향악단



B E E T H O V E N, S Y M P H O N Y N O. 9 'C H O R A L'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2025.12.27. SAT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트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엔코, 요엘 레비, 피에타리 잉키넨 등 세계 최정상의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 현장에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되며, 공연 외에도 방송프로그램 및 콩쿠르 사업, 지역과 연계한 음악제, 기업 후원의 공익연주회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공식 연주 평가에서 5점 만점을 기록하였다. 2024년 8월에는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아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KBS교향악단은 디지털 콘텐츠를 선도하며, 코로나 시대에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의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디지털 K-Hall’ 아카이브를 오픈하여 고품격 음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교향악단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수 10만 명을 돌파하여 실버 버튼을 받은 후, 현재는 구독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 아시아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사장

이승환

단원

제1바이올린	최병호 부악장 반선경수석 유신혜부수석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윤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신지현 이수연
제2바이올린	권민지수석 임정연부수석 안지현부수석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이유진 김시연
비올라	진덕수석 한넬리부수석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첼로	김우진수석 윤여훈부수석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안예진 심수연
더블베이스	이창형수석 김남균부수석 안수현부수석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플루트	김태경부수석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수석 김종아부수석 조성호
클라리넷	이하늘부수석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부수석 고주환부수석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장수정
트럼펫	남관모수석 김주원부수석 정용균 김승현
트롬본	김성수부수석 윤지언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수석
타악기	Jason Yoder 수석 장세나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객원수석

악장	Andrew Haveron (시드니 오케스트라 악장)
플루트	Zofia Neugebauer 수석
클라리넷	조성호 수석
호른	Sam Jacobs 수석

한국예술종합학교인턴십3기

제1바이올린	권예진 김가연
제2바이올린	박선경 임정민
비올라	송경민 이태형
첼로	신소담
바순	심충현
호른	선수경
트럼펫	박찬영
트롬본	임상원

사무국

사무국장	신승원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공연기획팀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최난희 사원 허효정 공연지원파트 (악기담당) 단원 유재식 정오준 (악보담당)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강길호 차장 이한신 과장 이미라 PD 서영재 사원 차하영 장태형
경영관리팀	팀장 손대승 차장 유연철 유정의 박연선

KBS교향악단 후원회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돋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정가	기간	등급별 혜택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 포함, 교통/숙박 제공)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단체 위한)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VIP 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2인 교통, 숙박 제공/연 1회)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 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공통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티켓 20% 할인)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 (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 · 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KBS교향악단 기념품 제공
-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o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el 02-6099-7407, 010-4932-3061
andy@kbssymphony.org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상임이사	이승환 KBS교향악단 사장

이사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덕술 유니스트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은 KBS 시청자센터장 이황선 KBS 예능센터장 하종란 KBS 라디오센터장
----	---

후원회 명단

Concerto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김덕술 유니스트리 자산운용(주)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정수 (주)제이에스엔에프 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이영애 배우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최원석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자산운용
-----------------	---

Nocturne	교보문고 국은주 김동진 금양식품(주) 대표 김영기 변호사 이재록 (주)석교디앤디 대표 이종원 H&O 코리아 대표 이황일 (주)하어스엠 대표 정옥선 (주)세이프케미컬 대표 NH투자증권
-----------------	--

Cantata	고중제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김명환 (주)덕신하우징 회장 김효수 (주)효석 대표 문양호 (주)동영관광 대표 민성우 에스엠글로벌코리아(주) 대표이사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옥 전)KBS교향악단 사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신한투자증권 안국약품(주)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이윤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이충희 (주)듀오 회장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최명배 (주)엑시콘 사장 허승현 PHA 사장 한국산업은행
----------------	---

Prelude	곽동욱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도영 변호사 김승중 전)KBS감사 김영선 KBS PD 김영철 배우 김용 김은영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대외협력 이사 김종운 김진오 변호사 김한나 변호사 김희연 전)KBS교향악단 첼로 단원 김희진 포크가수, DJ 노기용 박상현 (주)밸렉스 대표이사 박옥균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양영은 KBS 앵커 오지연 변호사 유수엽 유순신 (주)유앤파트너즈 대표 윤도식 변호사 윤종효 씰리코리아 컴퓨터(유) 대표이사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명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이지민 영인과학(주) 대표이사 장희용 변호사 장희진 올리브클래식 대표 전병율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변호사 정용실 정인채 (주)초록숲 대표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조용상 가천대학교 교수
----------------	---



Life ON Sealy



시간이 흐를수록
세대를 거듭할수록
선명해지는 가치가 있다
144년 당신을 지지해온
씰리 포스처피드
Life ON Sealy



-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 02-6099-7400
- Ⓕ 02-6099-7416
- ⓫ www.kbssymphony.org
- ⓫ facebook.com/kbssymphony
- ⓫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 \(혹은 'kbssoforever'\)](#)
- ⓫ [kbssymphonyorchestra](#)
- ⓫ youtube.com/@KBS_Symphony_Orchestra